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들을 보며)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건축학과 교수 ○○○입니다. 전통 건축 양식을 주제로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골라야 고등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재미있는 강연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학생들의 대답을 경청한 후) 그림이나 벽화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비슷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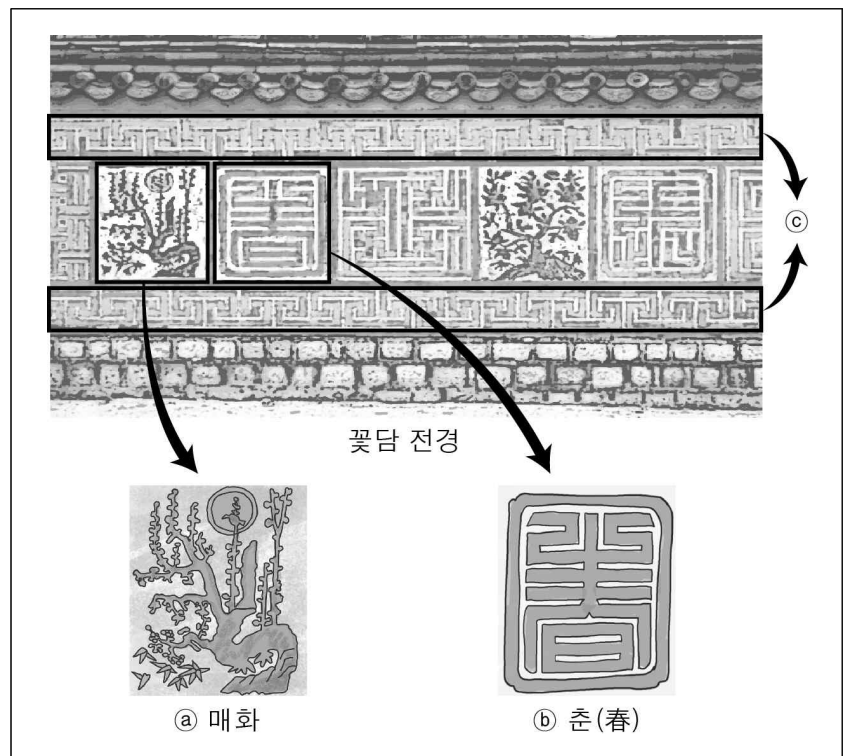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꽃담의 무늬를 가까이서 찍은 것입니다. 꽃담은 순우리말로, 아름다운 무늬나 그림을 넣어 장식한 담을 말합니다. 궁궐, 사대부 집, 일반 살림집 등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꽃담은 장독대나 굴뚝과 조화를 이루며 멋을 뽐냈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검소함을 숭상하는 문화로 인해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꽃담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경복궁 자경전 꽃담입니다.

(사진들을 연달아 보여 주며) 이 ㉠ 사진들은 자경전 꽃담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이 꽃담은 벽이나 돌담을 쌓기 위해 다듬은 사괴석을 하단에 3층으로 쌓고 그 위에 붉은색 벽돌을 다시 쌓은 후, 상단에 기와를 이었습니다. 이 중 붉은색 벽돌 부분이 무늬가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먼저 벽의 테두리에 끝없이 이어지는 무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문자, 꽃 등의 무늬를 넣었습니다.

자경전 바깥으로 향한 외벽의 주된 특징은 붉은색 벽돌에 흰색 바탕을 만들고, 여기에 매화, 국화 등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는 매화는 고결한 인품을, 서리를 이겨내고 가을에 피는 국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매화나 국화 옆에 그 무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를 부각하기 위해 문자를 기하학적으로 변형해 네모 모양으로 넣었습니다. 반면에 내벽에는 사악함을 물리친다는 벽사(辟邪)를 상징하는 육각형 속에, 작은 꽃무늬를 정교하게 상감(象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경전 꽃담 무늬는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을 고려하여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창덕궁 낙선재 꽃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하기에 앞서 강연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강연 시간을 고려하여 전달할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⑤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에서 제시된 ㉠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래부터 사괴석, 벽돌, 기와의 구조로 되어 있군.
- ② 육각형 속에 작은 꽃무늬를 새긴 것을 보니 내벽에 해당하는군.
- ③ ㉠에 새겨진 매화 무늬는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군.
- ④ ㉡는 ㉠과 관련이 있는 문자를 기하학적으로 변형해 넣은 것이군.
- ⑤ ㉢는 끝없이 무늬가 이어지는 테두리에 해당하는군.



[6~8] 다음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글을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작문 계획과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처음
  - 사물 인터넷의 개념 ..... ㉠
  - 사물 인터넷의 사례 ..... ㉡
- 중간
  - 사물 인터넷의 경제적 가치 ..... ㉢
  - 국내 사물 인터넷 산업의 현황 ..... ㉣
  - 국내 사물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 방안 ..... ㉤
- 끝
  - 사물 인터넷의 의의와 기대효과

**[초고]**

최근 사물 인터넷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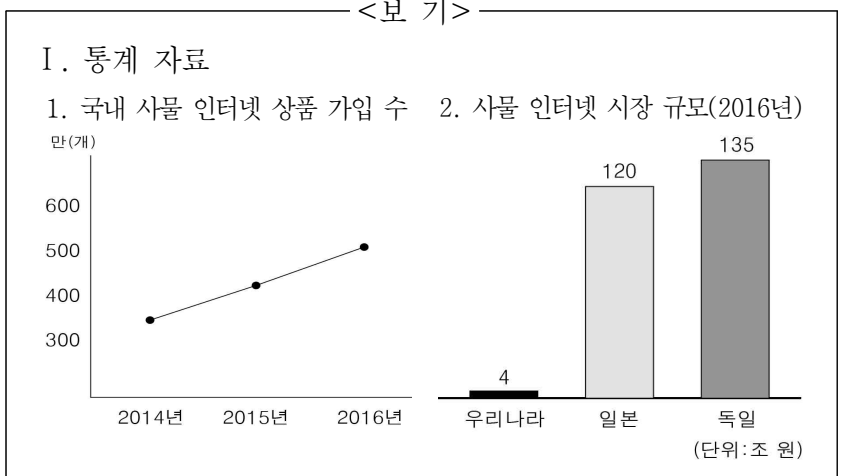
통계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 14조 4,000억 달러, 공공 부문 4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선진국들은 에너지, 교통,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사물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의 기업들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사물 인터넷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업에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물 인터넷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동 통신 기술 및 차세대 빅 데이터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I. 전문가 인터뷰

“사물 인터넷 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헬스케어, 물류, 금융, 농업 등 적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분야입니다. 2020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만 따져도 22조 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각 기업의 제품끼리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신문 기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 시는 연간 전력 소비량의 30%를 절감하고, 주차 요금으로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I-1을 활용하여 사물 인터넷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I-2를 활용하여 국내 사물 인터넷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③ II를 활용하여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을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로 추가한다.
- ④ I-2와 III을 활용하여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투자가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⑤ II와 III을 활용하여 사물 인터넷 산업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6.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8. <조건>에 따라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작문 계획’의 ‘끝’ 부분을 반영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우리는 좁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물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 ② 사물 인터넷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물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날의 검처럼 인간을 도외시한 기술 발전은 오히려 인간의 삶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사물 인터넷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사물 인터넷은 세상을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는 끈이다. 이런 사물 인터넷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9~10] 다음은 봉사 단원 모집을 위한 안내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누리 밝힘이 봉사단’은 그동안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회가 지난주에 실시한 ‘봉사 활동 참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 2학년 학생 중 약 73%가 봉사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봉사 활동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저희 봉사단에서는 제3기 봉사 단원을 모집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의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3기 봉사단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과 ‘지역 아동 센터 도우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은 지난여름 학교 주변의 텃밭에 심어 놓았던 배추를 봉사 단원들이 수확해 김장을 담그고, 이를 학교 인근에 ㉡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께 나눠 드리는 활동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도우미 활동’은 우리 학교 인근의 지역 아동 센터에 매주 방문하여 청소, 간식 준비, 아이들의 학습 등을 돕는 활동입니다. ㉢ 지역 아동 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로,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민 자치 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3기 봉사 단원들은 이러한 활동들에 ㉣ 참여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기 봉사 단원이었던 ○○○ 학생은 “이웃을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였다.”라고 봉사단 활동의 의의를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이 모이면 세상을 밝게 ㉤ 비치는 커다란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봉사단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누리 밝힘이 봉사단’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윗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여 봉사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 ② 봉사단의 역사를 소개하여 봉사단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 ③ 봉사 활동의 개념을 정의하여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전달한다.
- ④ 다른 봉사 활동 단체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여 봉사단의 가치를 부각한다.
- ⑤ 경험자의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② ㉡: 의미가 중복되므로 ‘홀로 사시는 노인’으로 고친다.
- ③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참여함으로써’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비추는’으로 고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이러한 서술어의 자릿수에 의한 서술어의 종류에는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에서 한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가지 성분을 모두 요구하는 ㉠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한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홀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겹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은 ‘나열’, ‘대조’, ‘선택’ 등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배경’, ‘원인’, ‘조건’, ‘결과’, ‘목적’ 등의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효도훈과 공순호물  
(효도함과 공순함을)
- ㉡ 兄(형)ᄒ ㉢ 쁘디 일어시닐 ㉣ 聖孫(성손)을 ㉤ 내시니이다  
(형의 뜻이 이루어지시매 (하늘이) 성손을 내셨습니다.)
- ㉥ 世尊(세존)ᄒ 安否(안부) ㉦ 물줍고 니르샤되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군.
- ④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군.
- ⑤ ㉦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 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재해 등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는데, 손상된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살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미술품 복원 작업이라고 한다. 복원 작업을 할 때에는 미관적인 면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인위적인 처리를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복원 처리 작업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예방 보존 작업은 작품의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으로, 작품 보존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등 작품 전시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작품의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 해당된다.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은 작품의 손상이 매우 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으로, 허물어져 가는 벽화를 보강하거나, 모자이크 형식의 작품

사이에 생긴 잡초를 제거하는 일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작품의 깨진 조각을 재배열하여 조합하는 경우처럼 작품의 일부가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보존 복원 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이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품이 만들어진 목적과 작가의 의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A] 미술품 복원 작업은 작품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육안으로 작품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X선투과사진법’을 이용한다. X선은 파장이 0.01~10nm인 전자파로 파장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파장이 짧은 전자파는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증가하며,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은 감소한다. 또한 X선은 필름을 감광\*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을 사이에 두고 X선원의 반대 측에 필름을 놓은 후 X선을 쬐으면, 필름에 흑백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 따라서 흑백의 명암 차를 분석하면 물체의 밀도와 두께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상태를 조사한 후에는 손상 정도에 맞게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을 먼저 실시한다. 이 작업은 작품이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이다. 따라서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 ‘형광X선분석법’이다.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원소마다 고유의 원자핵 구조와 전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소의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X선을 쬐으면, 안쪽 궤도의 전자는 X선과 충돌한 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X선이 발생하는데, 이 형광X선의 파장을 분석하면 실험 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또한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형광X선의 방출량이 증가하므로, X선의 세기를 측정하면 원소의 양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형광X선분석법은 실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측정 또한 몇 분 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의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리닝 작업을 마친 미술품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미술 작품들은 끊임없는 복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그 생명을 연장해 왔다. 따라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감광: 사진에서, 필름에 바른 감광제에 빛을 쬐어 흑백의 상을 만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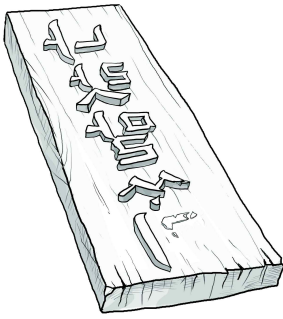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술품 복원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술품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 ②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술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③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과 과정을 서술하면서 과학적 분석 방법이 활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미술품 복원 작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며 과학적 분석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⑤ 미술품 복원에 대한 평가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과학적 분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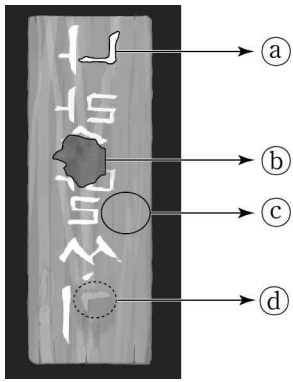
17.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영장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목판의 글자가 일부 손상되어 복원 작업을 하려고 한다. 목판을 복원하기 전에 'X선투과사진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장을 얻었다.



<촬영 전 목판>



<X선 촬영 영상>

- ① a~d 중에서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b이겠군.
- ② 파장이 짧은 X선을 사용할수록 c는 더 검게 나타나겠군.
- ③ b를 보니 목판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손상 부위가 있겠군.
- ④ a와 c의 명암 차이는 해당 부위의 목판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⑤ d는 목판의 해당 부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a보다 검게 나타난 것이겠군.

1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보존 복원 처리 작업에 해당한다.
- ②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로 인해 발생한 작품의 손상은 복원 작업에서 제외된다.
- ③ 허물어져 가는 벽화의 성분 분석을 할 때에는 형광X선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형광X선은 원소의 안쪽 전자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X선과 충돌하여 바깥쪽 궤도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 ⑤ 미술 작품의 보존 작업은 작품 원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보다 미관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9.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화재로 인해 손상된 미술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작품 표면에 생긴 이물질인 그을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을음은 보통 탄화수소(CH)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을음에 산소(O)를 쏘게 되면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CO<sub>2</sub>)나 일산화탄소(CO)가 되어 증발한다. 또한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수증기(H<sub>2</sub>O)가 되므로 작품에 생긴 그을음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 '산소원자복원법'이라고 하는데, 미술품을 이루는 원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해도 작품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① ㉠과 ㉡는 모두 복원하고자 하는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② ㉠은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는 클리닝 작업을 실시할 때 시행하는 방법이다.
- ③ ㉠은 특정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는 특정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④ ㉠은 X선에 의해 원소의 양이 증가하는 원리를, ㉡는 산소 원자에 의해 원소끼리 결합하는 원리를 활용한다.
- ⑤ ㉠의 결과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 결과는 작품을 구성하는 원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 ② 나는 물건들을 색깔별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 ③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을 말한다.
- ④ 우리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 ⑤ 상금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혜원 이월마을에서 칠현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그만 나는 영문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어  
 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뭇짐 지게 무겁게 지  
 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적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므로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여 년 만에 강렬  
 한 곳이다

㉡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벽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낱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  
 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나는 광혜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의 칠현산 험  
 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 고은,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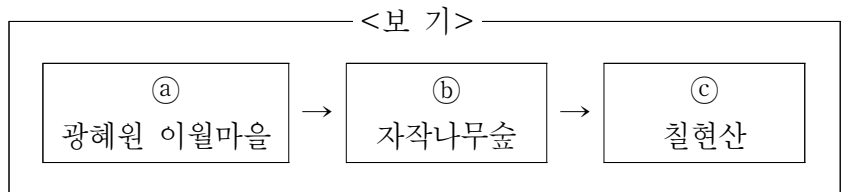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 **뽕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 **쫄쫄쫄쫄 쫄쫄쫄쫄,**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미래를 가정하여 화자의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여 화자의 대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에서 ㉡를 찾아간 것은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하여 ‘타락’에서 구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 때문이겠군.
- ② ㉡에서 화자는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자작나무의 속성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군.
- ③ ㉡에서 화자는 자작나무를 보며 자신의 지나온 삶이 ‘교조적인 삶’이었음을 반성하고 있군.
- ④ ㉡에서 화자는 자작나무를 보며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⑤ 화자는 ㉡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를 ‘등지고’ ㉢를 향해 ‘서슴없이’ 가게 되었군.

23. ㉠~㉤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5년 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저소득보장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저소득보장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일정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를 실시할 경우 국가는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가령 최저생계비를 8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국가라면, 총소득이 50만 원인 가구는 국가로부터 30만 원을 지원 받아 80만 원을 보장 받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소득을 ㉠ 넘어선 어느 지점부터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소득을 '면세점'이라 하는데,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총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경우 면세점 이하나 그 부근의 소득에 속하는 일부 실업자, 저소득층은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하게 되므로 관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며, 실제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존의 복지 재원을 하나로 모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또한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제는 자격 심사 과정이 없어 관리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소외된 빈곤 인구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는 만큼,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할 때보다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기본 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 계층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어 기본소득제를 현실 사회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 받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최근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몰고 올 실업 문제와 경제 불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 총소득: 세금 부과 이전, 또는 정부 지원 이전의 전체 소득.  
\* 순소득: 세금 부과 이후, 또는 정부 지원 이후의 실제 소득.

24.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최저소득보장제와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최저소득보장제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 ③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 ④ 기본소득제가 최저소득보장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유는 무엇인가?
- ⑤ 기본소득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5. <보기>는 '최저소득보장제'를 채택한 어느 국가의 가구별 소득을 나타낸 표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위: 만 원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총소득	40	80	50	110	200
순소득	100	100	50	88	160

\* 최저생계비를 면세점인 100만 원까지 보장해 줌.  
\* 총소득이 면세점을 넘는 경우 20% 균등 세율을 적용함.

- ① ㉠ 가구는 국가로부터 60만 원을 지원 받았겠군.
- ② ㉡ 가구는 순소득이 1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었군.
- ③ ㉢ 가구의 총소득과 순소득을 보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이겠군.
- ④ ㉣ 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 ⑤ ㉤ 가구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줄어든 것이겠군.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도한 생산으로 자원이 낭비되어 국가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 ② 국가의 지원에 만족하는 사람이 늘어나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 ③ 기본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므로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 ④ 소득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빈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 ⑤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지므로 일부 실업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단어의 결합 방식이 ㉠와 다른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윗글의 ㉠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① 주고받다                      ② 타고나다                      ③ 알아듣다  
④ 알아입다                      ⑤ 오르내리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국 문학 작품들 사이에 면면히 흐르는 공통적인 특질을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한다. 한국 문학에는 정(情)과 한(恨)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많다. 그중 한은 인간의 감정이 억눌려 응어리가 매듭처럼 맺힌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한은 수난이 잦은 역사의 비운이나 사회적 억눌림 그리고 어긋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한국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만을 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풀이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한 의 문학’이자 ‘풀이 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택의 「별사미인곡」은 평생 벼슬을 하지 못했던 그가 [A]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갔을 때 지은 가사로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작품이다. 유배 가사를 비롯한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 중에는 임금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의 슬픔과 억울함 등을 담아낸 작품들이 있는데, 이때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대개 이런 작품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으로 한을 극복한다.

[B]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으로 재담을 통해 봉건적인 가족 제도와 양반의 무능과 허위, 부조리 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이러한 탈춤은 서민들을 억압하는 사회를 풍자하고, 양반을 비하하는 욕설, 행동 등을 거침없이 표현하여 서민들의 금지된 욕망을 드러낸다. 또한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통해 대상을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서민들이 겪었던 갈등과 고통을 웃음으로 해소한다.

(나)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말씀을 들어하니 설운 줄을 다 모르겠네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廣寒殿)\* 백옥경(白玉京)\*의 님을 뵈셔 즐기더니  
이별을 하였거니 재양인들 없을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설워 마소

어떻다 이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없네  
광한전 어디메오 백옥경 내 알던가  
원앙침(鴛鴦枕) 비취금(翡翠衾)에 뵈셔본 적 전혀 없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얼로 님 사랑할고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틀가  
엇언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삼기시고 성현이 가르치셔  
정확(鼎鑊)\*이 앞에 있고 부월(斧鉞)\*이 뒤에 있어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갈리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없는 것만 얻어  
㉠ 부용화 옷을 짓고 목란으로 꽃신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려니  
조물 시기한가 귀신이 훼방 놓았는가  
(중략)

님을 뵈셔 그러한 각시님 같았던들  
설움이 이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가  
차생이 이렇거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어져 구름이나 되어 이셔  
상광 오색(祥光五色)이 님 계신 데 덮었으면  
그도 마다하면 바람이나 되어 이셔  
한여름 청음(淸陰)\*의 님 계신 데 불고지고  
- 김춘택,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 -

\* 광한전: 달에 있다는 전설의 궁전. / \* 백옥경: 옥황상제가 사는 서울.  
\* 정확: 죄인을 삶아 죽이는 가마. / \* 부월: 도끼.  
\* 청음: 시원한 그늘.

(다)

생 원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 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 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 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밟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 원 이놈, 말뚝아.  
말뚝이 예에.  
생 원 나랏돈 노랑돈 칠 폰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 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랩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 원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 원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 원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밧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하오? ㉡ 돈이나 몇백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 -

\* 일조식: 아침 일찍 식사함. / \* 법덕: 프랑스와 독일.  
 \* 무량대각: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셈.

2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한국 문학 작품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② 역사의 비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감정이 응어리져 맺힌 것을 한이라 할 수 있다.
- ③ 탈춤은 현실의 억눌림을 웃음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풍자의 문학으로 볼 수 있다.
- ④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들은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해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배 가사는 임금과의 어긋난 관계로 인한 슬픔과 억울함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29.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다고 할 때, <보기>를 활용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공통점
  - 임금을 천상계에 계신 임으로 그림. .... ㉠
  - 임금을 모셨던 작가 자신을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그림. .... ㉡
  - 죽어서도 입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
- 「사미인곡」의 특징
  - 계절에 따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읊음. .... ㉣
- 「속미인곡」의 특징
  - 두 여인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함. .... ㉤

- ① ‘광한전 백옥경’을 보니 ㉠과 같이 임이 계신 곳을 천상계로 설정하고 있군.
- ② ‘되셔본 적 전혀 없네’를 보니 ㉡과 달리 벼슬을 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군.
- ③ ‘구름’, ‘바람’을 보니 ㉢과 같이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목란’, ‘한여름 청음’을 보니 ㉣과 같이 계절적 소재를 통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군.
- ⑤ ‘이보소 저 각시님’을 보니 ㉤과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군.

30.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연쇄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31. [B]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 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 양반을 얹잡아 보는 말을 사용하여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 ③ ㉢: ‘취발이’를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서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 양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 돈을 받고 죄를 눈감아 주던 당시의 모습을 드러내어 부패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② ㉡는 화자의 절망적 현실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반성적 성찰을 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는 화자가 상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소재이다.
- ⑤ ㉡는 화자와 임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재이고, ㉣는 ‘말뚝이’가 위임 받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눈동자를 크게 혹은 작게 만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므로 눈동자 모양이 원형인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런데 고양이와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세로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가로로 눈동자 모양이 길쭉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육상동물 중 모든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것은 아니다. 주로 매복형 육식동물의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하다. 이는 숨어서 기습을 하는 사냥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가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쪽 눈으로 초점을 맞춰 대상을 보는 양안시로, 각 눈으로부터 얻는 영상의 차이인 양안시차를 하나의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면서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안시차뿐만 아니라 거리지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요소로 심도 역시 중요하다. 심도란 초점이 맞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며, 심도는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눈동자의 크기가 커져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커지기 전보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초점의 범위가 좁아진 경우를 심도가 '얕다'고 하며, 반대인 경우를 심도가 '깊다'고 한다.

이런 원리로 매복형 육식동물은 세로로는 커지고, 가로로는 작아진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얇고, 가로로는 심도가 깊은 영상을 보게 된다. 세로로 심도가 얕다는 것은 영상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벗어난, 아래와 위의 물체들 즉 실제 세계에서는 초점을 맞춘 대상의 앞과 뒤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가로로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한다. 세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사냥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냥감을 제외한 다른 물체들이 흐릿해짐으로써 눈동자가 원형일 때보다 정확한 거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해진다.

한편,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으며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져 있다. 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면서 포식자의 출현을 사전에 알아채야 하는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다. 초식동물은 가로로 길쭉한 눈동자를 통해 세로로는 심도가 깊고 가로로는 심도가 얇은 영상을 얻게 되는데, 이로 인해 초점이 맞는 범위의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여 거리감보다는 친적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게다가 눈동자가 가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위아래에서 들어오는 빛보다 많아 영상을 밝게 볼 수 있다. 또한 양안시인 매복형 육식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한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는 단안시여서 눈의 위치가 좌우로 많이 벌어질수록 유리하다. 두 시야가 겹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정면뿐이지만 바로 뒤를 빼고 거의 전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물의 눈동자 모양은 동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포식자가 될지, 피식자가 될지 그 위치에 따라 각각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해 온 것이다.

33.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의 생태학적 위치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육상동물의 눈동자 모양  
-원형인 눈동자의 장점을 중심으로
- ③ 눈동자 모양의 결정 요인  
-눈동자의 색과 구조를 중심으로
- ④ 효과적인 심도 조절 방법  
-양안시와 단안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⑤ 눈동자 모양과 생존 방식  
-매복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를 중심으로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물들은 눈동자의 크기에 따라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진다.
- ② 매복형 육식동물은 양안시차를 통해 물체와의 거리를 파악한다.
- ③ 동물들은 홍채에 있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한다.
- ④ 단안시인 초식동물은 눈의 위치가 좌우로 벌어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 ⑤ 매복형 육식동물은 초식동물과 달리 두 눈을 통해 입체 영상을 얻는다.

3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늑대      바위      양      나무

양을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 늑대는 사냥감에 초점을 맞춘 후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모든 물체들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과 늑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때, ㉠ 양과 늑대가 얻는 영상의 심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 양과 늑대의 눈에는 다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일까?

	㉠	㉡
① 양	가로로 심도가 깊음. 세로로 심도가 얇음.	바위와 늑대보다 나무가 더 어두워 보임.
② 양	가로로 심도가 얇음. 세로로 심도가 깊음.	늑대와 나무, 바위가 모두 뚜렷해 보임.
③ 늑대	가로로 심도가 깊음. 세로로 심도가 얇음.	나무와 양보다 바위가 더 뚜렷해 보임.
④ 늑대	가로로 심도가 깊음. 세로로 심도가 얇음.	양보다 바위와 나무가 더 흐릿해 보임.
⑤ 늑대	가로로 심도가 깊음. 세로로 심도가 깊음.	나무가 바위와 양보다 더 뚜렷해 보임.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들은 팔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나같이 고개들을 숙인 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의 표정 속에는 공포와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불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목을 조르던 공포와 긴장이 뜻밖에도 아주 빠르게 안도와 기쁨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다. 거사는 실패했다. 그리고 거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자, 실패가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신이 나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스꽝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온 온갖 불안에서 나는 불과 몇십 초 사이에 깨끗하게 해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또 한 번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안도감에 잠긴 나를 몽둥이로 내려치듯이 통렬하게 후려쳤다. 누군가가 들연 자리를 박차고 두 손을 높이 쳐들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었다.

“조선 반자이(조선 만세)!”

기쁨이었다. 그는 우렁차게 만세를 부른 후, 그대로 앞좌석에 홀로 대뜸하게 서 있었다. 장내는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기쁨에게 집중되었다. 학생들도 고관들도 헌병들조차도 낯나간 표정으로 기쁨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을 내포한 폭발 직전의 서늘한 침묵이었다. 침몰하는 배 위에 올라탄 듯한 한없이 낭패스러운 삭막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주 긴 시간인 것도 같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도 같았다. 식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헌병들은 이윽고 긴장된 표정으로 저마다 긴 칼자루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쁨이 또 한 번 소리치면 식당에서 당장에 그를 체포할 듯한 협박한 기세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기쁨의 두 팔이 다시 번쩍 머리 위로 쳐들렸다.

“닛본 반자이(일본 만세)!”

침묵은 계속되었다. 헌병들은 칼자루에 손을 댄 채 여전히 기쁨을 쏘아보고 있었고, 기쁨은 이번에도 만세 후에 여전히 앞좌석에 꼳꼳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약간 성질이 달랐다. 식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는 긴장 대신에 묘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기쁨을 향해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왜 조선 만세를 부른 후에 뒤따라 다시 일본 만세를 불렀는가? 너의 만세는 무슨 뜻인가? 너는 대체 어느 편인가? 그러나 이 의문도 뒤따라 곧 해답을 얻었다. 기쁨이 다시 두 팔을 쳐들고 제3의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다이토아 반자이(대동아 만세)!”

식장을 지배해 온 숨 막히던 긴장은 이 세 번째 만세로 깨끗이 해소되었다. 그는 첫 번째 만세로는 동지들의 체면을 세워 주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세로는 동지들을 위협에서 구해 준 것이다.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쁨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사전에 이미 거사가 실패할 것을 예견했고, 만일 성공할 기미를 보였다면 처음부터 거사를 실패시킬 목적이었다.

[중략 줄거리] 기쁨은 일규를 배신한 적이 있음에도, 일규가 그리워 그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나는 그런 기쁨과 대화를 나눈다.

그럴듯한 음모였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도둑놈아, 억지 쓰지 마라. 너는 파렴치범에 불과하지만 일규는 전신으로 세상을 산 놈이다. 아무리 네가 잡아 흔들어도

도 일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에, 나는 안다. 그놈은 운 좋은 삼류 무사(武士)에 불과했다. 뽑아 본 일 없는 칼을 차고 질 수 없는 전쟁만 멋들 어지게 해 온 놈이다. ㉠ 나는 세상이 가장 혼탁할 때는 일규가 어디 있는지 본 일이 없다. 그놈이 칼을 뽑았을 때는 누군가가 위기를 제거해서 세상이 더없이 편안해진 후다. 이것이 바로 무사의 허풍스런 참모습이고 무사가 너희한테 존경과 사랑 받는 소치인 것이다.”

“너는 그럼 그런 일규를 왜 허공에서 찾은 거냐? 왜 일규가 없어진 지금 살맛이 없다고 하는 거냐?”

“세상은 주인이 필요하다, 광대 같은 주인 말이다. 무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무대를 비워 둘 순 없지 않냐? 내가 일규를 필요로 하는 건 그 녀석이 무대 위에 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간판 구실을 잘 해내기 때문이다.”

“좋다, 네 쪽은 그렇다 치자. 허지만 일규 쪽에서는 왜 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냐?”

[A] “무사가 칼을 차고 지나가면 그 뒤엔 그를 칭송할 악사(樂士)가 필요한 법이다. 칼이 허리에서 절그럭거려서 무사는 자기 입으로는 자찬의 노래를 읊을 수가 없다. 악사는 바로 이런 때를 대비했다가 무사의 눈짓이 날아올 때 재빨리 악기를 꺼내 황홀한 음악을 탄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사와 악사가 서로를 정면하면서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우정이다.”

“너는 그럼 무사 뒤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

“㉡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겐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 즐거움이다. 나는 살고 있어서,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에 너는 그 이상 무슨 뜻이 있다는 거냐?”

“사람이 사는 데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면 사람과 동물과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네놈의 그 추잡한 행각들을 변호하기 위해 너는 너 자신의 사는 의미까지 죽일 셈이냐?”

“네 말은 순서가 틀렸다. 사는 의미를 죽이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다. 세상은 서툰 어찌 밥이나 먹여 주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강요한다. 너도 정신이 울바로 박혔으면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일제시대와 대동아전쟁, 조국의 해방과 남북 분단, 6·25 사변과 동족상잔, 4·19 의거와 5·16 혁명…… ㉢ 뭘 했냐 너는? 이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한 일이 대체 뭐냐? 우린 모두가 살아남은 게 고작이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영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냥 똥이나 싸고 아침저녁으로 자식들이나 만들었을 뿐이다. 36년 동안 일제하에 있으면서 이천만 동포는 무얼 한 거냐? 대체 그들이 무얼 했길래 일제가 물러가자 반민특위(反民特委)를 조직한 거냐?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난 애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비사(秘史)나 비록(秘錄)으로 공소 시효 지난 후일 담으로나 나올 뿐이다. ㉣ 무수한 양심이란 것들이 그것들의 진행을 목격했지만 그것들이 진행될 동안은 누구 하나 꺾소리 없었다. 그 많은 정의와 양심들은 그때는 모두 어디 틀어박혀 있는 거냐?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고결하고 존경 받을 만한 ‘의의 있는 삶’이라는 거냐? 우리는 악사다. 재산이라고는 아주 잘 트인 목청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다. ㉤ 무사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뒷전에서 잘한다, 옹소 하고 소리나 쳐주면 되는 거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즐거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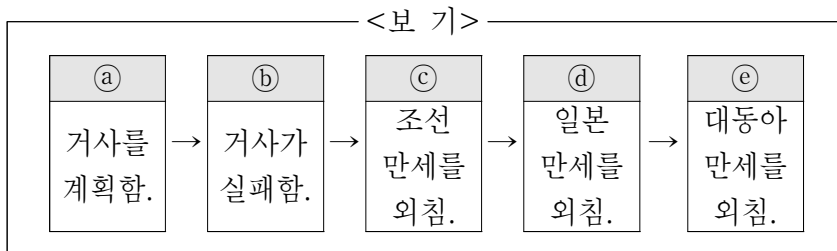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3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② 공간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40. <보기>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기범이 a에 참여한 이유를 e가 끝난 한참 후에 깨달았다.
- ② '나'는 b에 대해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 ③ c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기범에게 집중되었다.
- ④ 헌병들은 기범이 d를 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 ⑤ e로 인하여 식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해소되었다.

4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동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의 행적을 언급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 ④ 상황을 반전시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반문하며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위 작품에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상황에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 세상이 편안해진 후에야 행동한 것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② ㉡: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생계유지에 무책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④ ㉣: 누구 하나 깃소리 없었던 것은 침묵으로 정의의 목소리를 대신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⑤ ㉤: 뒷전에서 잘한다는 말이나 하는 것은 이념에 따라 행동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옥경의 선관이 항상 제일봉에 와서 놀았는데 황제가 거동하시는 것을 보고 선관이 급히 올라가느라 옥저\*와 거문고를 버리고 가게 되었다.

이때 주봉이 그 옥저와 거문고를 보고 즉시 천자에게 바치니, 천자에게서 보시고 어루만지며 물으셨다.

“이것이 무엇이나? 세상에는 없는 것이로구나.”

하시고, 조정 백관들을 불러 알아보도록 하시니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선관이 가졌던 보배라 어찌 알겠는가. 천자에게서 주봉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길

“경(卿)은 아는가?”

하시니 주봉이 엎드려 아뢰었다.

“옥저는 장량이 계명산에 올라 팔천 병사를 흘렸던 옥저이고, 거문고는 선관이 팔선녀를 희롱하던 거문고이옵니다.”

천자에게서 명령하시기를

“경(卿)들은 다 각각 불러 보라.”

하시니 백관들이 아무리 불려도 해도 입만 아플 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봉이 명령을 받자와 옥저는 입에 물고 거문고는 손에 들고 희롱하듯 연주하니 옥저 소리는 산천의 초목이 춤추는 듯하고 거문고 타는 소리는 온갖 짐승이 노래하는 듯하였다. 천자에게서 주봉의 손을 잡으시고 못내 사랑하시며 여러 벼슬을 내리시며 주홍의 큰 글씨로 사명기(司命旗)\*를 써 주시고 환궁하셨다. 그 후로는 조정에서의 권세가 전국에서 진동하더라. 이때 조정 백관이 모여 의논하되

“주봉이 조정 권세를 자기 혼자 차지하였으니 우리는 무슨 벼슬을 하겠는가?”

하며 주봉을 원망하였다. 이때 좌승상 하던 유정한이라 하는 놈이 한 묘책을 생각하고 황제께 나아가 아뢰기를

“해평 도사를 보낸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들어보오니 해평 도사로 간 놈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작당하여 연습하고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옵니다. 이들이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킬까 하오니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천자가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짐도 괴이하다 여겼었는데, 과연 그런 듯싶구나.”

하시고 명령하여 가로되

“문무 여러 신하들 중에 충성심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어 보내도록 하라.”

하셨다.

[중략 줄거리] 해평 도사로 가던 주봉은 수적 장취경에 의해 아내와 헤어져 떠돈다. 한편, 주봉의 아내는 아들 해선을 낳지만 어쩔 수 없이 해선과 헤어지게 되고, 해선은 장취경에 의해 길러진다. 과거를 보러 황성에 간 해선은 하룻밤 묵게 된 곳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부인께서 소자를 보시고 그렇게 슬퍼하시니, 부인의 자제분은 어디를 가셨나 봅시다.”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아들 이름은 주봉이요, 일찍이 십사 세에 과거 급제하여 해평 도사로 간 지 십사 년이나 되었으나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으니 이런 답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 해선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과거 볼 생각도 없어져 부인에게 여쭙기를

“저 옥저와 거문고를 주시면 값을 후하게 쳐 드리겠습니다.” 했다. 해선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부인이 옥저와 거문고를 내주시니 해선이 받아 가지고 한번 불어 보았다. 부인이 그 부는 소리를 들으니 주봉과 같이 부는지라. 부인이 더욱 슬퍼하다가 주봉을 생각하고는 옥저와 거문고를 내어주며 말했다.

“죽은 자식을 생각하여 주는 것이니 부디 자주 들러 주시오.”

이때 해선이 부인에게 하직하고 바로 해평으로 날아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옥저와 거문고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산천이 진동하더라. 이때 주봉은 빌어먹으며 이곳저곳 다니다 천만의외로 옥저와 거문고 연주하는 소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은은히 들리거늘 반가운 마음에 더듬더듬 찾아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한 소년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옥저도 낮이 익었고 거문고도 낮이 익었다. 마음에 기이한 생각이 들기를

‘분명히 나의 옥저와 거문고로다.’

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를 본 해선이 물어보았다.

“결인은 무슨 연고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인가?”

결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주 승상의 아들 주봉인데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하였더니 황제께서 벼슬을 많이 주시매 조정이 시기하여 나로 하여금 해평 도사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평 도사로 부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수적 장취경을 만나 하인 삼십여 명이 다 죽었다. 또 나를 물에 밀쳐 넣었는데 옥황상제께서 살려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는 것이다.”

하고 옥저와 거문고를 자꾸 쳐다보았다. 이를 본 해선이 묻기를

“이 옥저와 거문고를 네가 한번 불어보겠는가?”

하며 옥저와 거문고를 주니 주봉이 받아서 옥저는 입에 물고, 거문고는 손으로 타니 그 소리의 맑고 아름다움이 해선보다 더 하더라.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부자지간 아니면 형제지간이다.”

하니 해선이 생각하기를

‘황성의 부인께서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주봉이 떠난 지 십사 년이고, 또 내 나이가 십사 세요, 사람들마다 내가 결인과 같다 하니 실로 이상하구나.’

하였다.

- 작자 미상, 「주봉전」 -

\* 옥저: 옥으로 만든 저. 관악기.

\* 사명기: 군대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는 해평에서 환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유정한의 말에 근심하고 있다.
- ② 부인은 해선의 연주를 듣고 해선이 주봉과 인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 ③ 해선은 아들 주봉과 헤어진 부인의 사연을 듣고 부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 ④ 주봉은 자신의 옥저와 거문고를 해선이 연주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조정 백관들은 주봉이 조정 권세를 혼자 차지하였다고 생각하며 주봉을 원망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봉전」은 주여득, 주봉, 주해선의 3대를 중심으로 한 ‘이산(離散)-시련-상봉(相逢)’의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 「주봉전」은 신물(神物) 획득과 가족 찾기, 위기 극복 과정 등에서 우연이 반복되고 전기성(傳奇性)이 두드러지는 등 작품 전반에 걸쳐 비현실적 요소를 삽입하여 당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큰 흥미를 갖게 하였다.

- ① 주봉이 결인이 되어 해평을 떠도는 것은 인물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죽을 위기에 처한 주봉을 옥황상제가 살려준 것은 ‘비현실적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③ 옥저와 거문고를 통해 주봉과 해선이 만나게 되므로 옥저와 거문고는 ‘상봉’의 매개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해선이 주봉의 어머니 집에 머물고, 연이어 주봉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해선이 부인을 만나 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과거를 치를 생각이 없어진 것에서 ‘전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